

‘지존’ 자존심 되찾겠다

■ KLPGA 레이디스챔피언십 내일 개막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사진)가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18일부터 서울 동안 경기도 포천 일동레이크골프장(파72·6천320야드)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신지애의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다.

작년에 9승을 쓸어 담았고 작년 12월 앞당겨 치른 2008년 시즌 개막전 차이나레이디스오픈을 제패하며 상금왕 3연패에 시동을 걸었던 신지애는 국내 개막전에서 ‘톱10’에도 들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13일 끝난 스포츠서울-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공동17위에 그친 신지애는 14개 대회 동안 이어왔던 연속 ‘톱10’ 입상 기록이 끊겼다.

대회 내내 한번도 언더파 스코어를 내지 못한 것도 프로 선수가 된 이후 처음 있는 망신이다.

신지애가 이처럼 스타일을 구긴 것은 스포츠서울-김영주골프 여자오픈을 치르기 전까지 해외 원정을 다니느라 피로가 쌓인 데다 그린 적응이 전혀 안됐기 때문이다.

신지애 ‘김영주 오픈’ 17위 악몽 털고

시즌 두자릿수 우승 향한 당찬 포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메이저대회인 나비스코 챔피언십이 끝나자 귀국길에 올라 프로암 전날 한국에 도착한 신지애는 시차 적응조차 마치지 못했다. 쌓인 피로와 시차 적응보다 더 큰 장애는 완전히 생소해진 국내 골프장 그린이었다.

대회 직전까지 빠르고 단단한 미국과 일본 그린에 퍼팅 컨디션을 맞춰던 신지애는 계절적인 요인 탓에 그린 스피드를 높이기 어려운 국내 그린에 올라서자 퍼팅 실력이 주말 골퍼 수준으로 추락했다.

라운드마다 40개에 육박하는 퍼팅을 해야 했던 신지애는 “프로 선수가 된 이후 이렇게 많은 퍼팅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적응력이 빠른 신지애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고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챔피언십에서 ‘지존’의 샷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다짐이다. 다행히 일동레이크골프장 그린은 국내 코스 가운데 비교적 빠르고 단단한 편이다. 신지애는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상금왕 3연패 뿐 아니라 지난해 아깝게 놓친 시즌 두자릿수 우승에 더담돌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스포츠서울-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한 유소연(18·하이마트)과 준우승자 최혜용(18·LG) 등 신예들의 돌풍이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3번째 ‘신지애 뛰어넘기’에 도전하는 안선주(21·하이마트)도 시즌 첫 우승을 노리고 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8가지 기능을 통합한 자산관리상품인 ‘옥토’에서 판 ‘옥토상’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대상자는 3라운드 합계 성적 8언더파를 기록한 선수로 ‘옥토 CMA’ 계좌 100만원을 준다.

신지애

“골프, 올림픽 진입 지금이 적기”

PGA 투어 “정식종목 채택 추진”

미국프로골프(PGA)투어가 골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팀 핀첨 PGA투어 커미셔너는 16일(한국 시간) 웹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지만 골프가 올림픽에 나갈 때가 왔다”며 이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골프는 1904년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정식종목에서 제외된 뒤 100년 이상 세월이 흘렀다.

핀첨 커미셔너는 “골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4개 메이저대회와 3개 월드골프챔피언십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 만큼 올림픽에 진입할 충분한 여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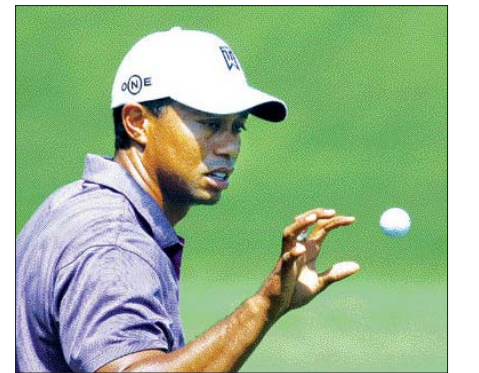
있다”고 덧붙였다. 골프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뻔 했지만 마스터스대회가 열리는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장의 성·인종차별이 문제가 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세계골프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PGA 투어가 적극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국제골프연맹은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활발한 접촉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IOC는 내년에 2016년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는 자리에서 정식 종목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상 향한 ‘뱅크 샷’ 조절

16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오션코스(파72·7천275야드)에서 열린 SK텔레콤오픈 프로암에 참가한 최경주가 11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 왼쪽무릎 수술

6주간 대회 출전 못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무릎 수술을 받아 4-6주간 대회 출전이 힘들게 됐다.

로이터, AP 통신 등은 우즈가 16일 유타주 파크시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세계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우즈는 1994년과 2002년에 같은 부위를 두차례 수술받은 적이 있다.

수술 뒤 재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즈는 5월1일 개막하는 와코비아 챔피언십과 5월8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즈는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www.tigerwoods.com)에서 “통증 때문에 수술을 결정했다. 마스터스 대회가 끝난 뒤 수술 일정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 우즈는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즈의 매니저 마크 스테인버그는 “우즈가 작년 중반부터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 의사와 상의한 결과 관절경 수술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팀 핀첨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커미셔너는 이 소식을 듣고 “타이거가 대회 출전할 수 없어 유감이다. 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사상 첫 그랜드슬램을 노렸던 우즈는 마스터스에서 2위에 그치면서 꿈이 무산됐지만 US오픈 등 남은 ‘메이저대회’에는 출전할 전망이다.



17일(목)

▲2008 회장기 전국 대학야구 춘계리그 결승(13:50·SBS스포츠)

▲2008 MBC배 대학농구(경희대: 동국대)(13:50·MBC)

▲SK텔레콤 오픈 1R(14:00·SBS골프)

▲제45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14:00·KBS N SPORTS)

▲프로야구(삼성:SK)(18:00·KBS N SPORTS)(KIA:LG)(18:10·SBS스포츠)

▲프로농구 챔피언 결경 1차전(18:20·KBS2)

2008 한미세계제나비 · 곤충엑스포 지원사업

대상 : 한미세계제나비곤충엑스포 하계 소지자

내용 : 주중 주말 그린피 1만원 할인

기간 : 2008년 4월 18일 ~ 2008년 6월 30일

사원모집

| | | | |
|------|----|-------|--------|
| 직책명 | 인원 | 자격요건 | 나이 |
| 관리사 | 1명 | 고졸 이상 | 20~30대 |
| 안내원 | 2명 | 고졸 이상 | 20~30대 |
| 주방보조 | 1명 | 고졸 이상 | 20~30대 |
| 합계 | 4명 | | |

신청기간 : 2008년 4월 18일 ~ 4월 25일

신청처 : 한미세계제나비곤충엑스포 (02-312-1111)